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6.22(목) -

-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회의임. 국무회의는 헌법상 근거를 가진 회의지만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마음 놓고 하는 회의는 아님
 - 대통령령에 정해진 회의이고,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음

-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단순했음
 -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일도 적었고, 행정의 성격 자체가 복잡다기한 일이 비교적 적었음
 -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, 정부의 말이 일방통행식으로 딱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음
 - 그러나 지금은 행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적 다층적으로 변했고,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

- 과거에는 행정이 그렇게 단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청와대가 있었고 그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만기친람 하듯이 다 조정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었음
 - 거기에 또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부부처가 존재했음
 - 경제기획원은 독자업무를 갖지 아니하고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일만 전담하는 그런 부처였음.
 - 그런데 지금은 행정은 복잡해지고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대이고, 지금도 여전히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국정의 점검·조정 기관이지만 청와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, 다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음

-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과거의 경제기획원만큼 강력하지는 않고, 또 과거의 기획원과 달리 독자업무도 가지고 있음
 -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시지만, 그 외의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심
 -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, 어려운 문제일수록 비경제 부처가 꼭 관련 되는 문제들이 많음
 - 오늘 시작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바로 그 공백을 해결해 가는, 관리해가는 회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음. 굉장히 중요한 회의임
- 한 정부가, 한 국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또는 국민들 간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함
 - 그래서 좀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회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함
 - 앞으로 어려운 문제라 해서 피해가지 않고 여기서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음
- 다만 오늘은 처음이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을 포함한 국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가뭄대책, 그런 사안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맞보기로 시작하겠음
- 이 회의가 앞으로 운영돼 보면 아시겠지만, 저도 이 회의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만 각 부처 장관님께서도 이 회의를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음

- 유관부처의 협력을 얻어야 할 때, 또는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, 이 회의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임
 - 이 회의는 부총리님 두 분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늘 참석하시고, 참석 멤버가 정해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소관 장관님들이 추가로 참석하시는 그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유연하게 운영을 해 가겠음
- 문재인 정부 한 달에 대한 저의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국가 목표, 국정목표가 빠른 시일 안에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다 이것은 저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확연한 인상임
- 그것은 좋은 점인데, 좋지 않다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다만 뚜렷하게 정리된 국정목표가 하나같이 어렵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함
-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함. 평지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길이 안보임. 길이 없어 보임
- 그러나 산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음.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까지 가게 됨
 -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능선까지 가다가 말거나 또는 산자락에서 노닐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만,
 - 우리가 문제마다 모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현안 조정회의가 됐으면 함
- 오늘 회의 안건 중에 가뭄,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음
- 제가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라남도의 가뭄현장을 직접 다녔고, 대구, 경북도 가뭄과 관련한 곳을 제가 다녀왔음

-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음. 평년에 비해서도 더 나쁜 상황임.
- 당장은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이고 일부 지방은 공업용수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, 또 어떤 지방은 먹는 물에 조류가 유입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곳도 있음
- 하나같이 시급한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있다 유관 부처들이 각자 보고를 드리고,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유관 부처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임

□ 두 번째로 오늘 논의할 것이 국회 대책임

- 다행히 인사청문회는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, 심의 일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안타까움

□ 두 가지 모두 국민의 눈으로 봐서는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함

-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,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새 정부의 첫 사업인 만큼 국회가 꼭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림

- 다수 국민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림

□ 그런 당위성은 있으나 국회는 또 하나의 현실이고 또 국회 또한 우리 정부 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, 우리가 국회의 존재를 존중해 가면서 더 간곡한 자세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짐